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10

강석준 목사님

처음에 부탁을 받았을 때는 거절하려고 했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부끄러워지니까, 감히 어떻게 가서 메시지를 할 수 있겠는가 싶었다. 특히 최정웅 목사님은 다락방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많은 교회가 목회자의 롤 모델로 꼽는 분이다. 개인적으로는 형님으로 늘 가깝게 모시는 분인데, 그런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결국 부탁하시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 사실 이 말씀은 몇 년 전 총회 행사 때 최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이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지금 은혜로 살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다.” 여러분과 그래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한다.

사람이 그런 것 같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다. 정말 감사가 나오면 헌신하게 된다. 충성하게 된다. 지난주에 어떤 책을 읽었다. <순교자들의 이야기>라는 책이었다. 내가 이런 가슴을 잃어버렸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다. 이분이 17살에 결혼을 했다. 그런데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시부모님을 모셨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바느질을 하다가 복음을 받았다. 이때부터 인생이 바뀌게 된다. 목사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는데, 이분이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자기 고향 전남 신안군의 중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분이 다니면서 십마다 교회를 세웠다. 중도의 2천 명 사람 중 90%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159명의 목회자, 81명의 장로님이 세워졌다. 59세에 이분이 순교했는데, 6.25 전쟁 때 공산군이 제일 먼저 죽인 것이 예수 믿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복음 받은 두 장로님 가정과 함께 순교를 당했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증언한 내용이다. 스테판 집사님이,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고백을 가지고 죽었다. 세상이 불 때는 개죽음인데, 그렇지 않다. 스테반의 죽음은 바울을 돌아오게 하는 죽음이었고, 세계복음화의 불을 지피는 시작이었다. 한 여인의 헌신과 수고와 순교가 그 마을 전체를 복음화하게 되었다. 신안에 교회 7백 곳이 세워졌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교단체가 CCC다. 김준곤 박사님이 이 속에서 복음을 받았던 것이다.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지고 왔다. 우리나라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하면서 젊은이들을 깨우고 한국의 교회를 깨웠다. 지금 홍정길, 이동원 같은 분들이 거의 김준곤 목사님의 제자들이다. 한 여인의 헌신, 수고, 희생, 순교가 이렇게까지 수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만신 목사님, 안산의 고훈 목사님, 이랜드의 박성철 장로님 같은 인물들이, 이분의 순교와 피의 열매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얼마나 제자를 세웠겠는가. 아나니아는 한 사람의 제자를 세웠는데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은 최목사님의 제자로 여기까지 인도를 받았다. 최목사님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다락방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류목사님의 방패, 울타리, 버팀목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인도를 받았음을 믿는다.

여러분 교회 이름은 참사랑교회고, 우리교회 이름은 참다운교회인데, 참이라는 글자가 같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다. 원색 복음이다. 이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도록 작정했다. 참된 교회는 전도와 선교다. 교회의 목적은 영혼 살리고 제자 키워서 천명, 소명, 사명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참다운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 여러분 교회도 이 참된 것을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하게 된다. 감사하는 자만이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마귀를 싫어하는데, 사실 까마귀는 흉조가 아니라 길조다. 새끼 까마귀는 어미 까마귀를 앉혀놓고 먹이를 물어와서 모신다. 인간이 개만도 못한 경우가 많다. 인간이 창세기 3장 속에 있으면 개보다도, 까마귀보다도 못하다. 은혜를 모른다. 부모도 못 알아본다. 임금과 부모와 스승을 하

나로 모셨는데, 지금은 이런 것이 다 무너졌다. 창세기 3장이다. 은혜를 잃어버린 세상이다. 부모, 형제, 사회, 나라에 대한 고마움, 감사를 다 잃어버렸다. 마지막에 오는 것은 멸망이다. 영국 BBC 기자가 한국에 대해 글을 썼다. 개만도 못한 한국 사람들은 박근혜만 해도 다행이다 하고 글을 썼다. 기분이 되게 나빴다. 반대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우면 되겠는가. 우리나라가 피로써 지켜진 나라 아닌가?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를 알고, 나라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나오는 것이 헌신이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만 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너무 감사해서 이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새롭게 출발하는 행복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첫째는 구원, 둘째는 직분, 셋째는 삶의 은혜다.

1. 구원의 은혜

(1)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울 때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을 배운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비를 맞고 같은 태양을 보고 같은 호흡을 한다. 이게 일반은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은총을 주셨다. 에베소서 1:1-4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 전에 선택하셨다. 5절에는 영세 전에 택정하셨다고 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세 전에 나를 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놀랄 일이 아닌가? 창세 전, 영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영세 전에 나를 택정하셨다.

(2) 에베소서 1:7-13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고 했다.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다.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종 노릇 하던 문제 속에서 고통 당하다가 지옥 가야 할 소망 없는 인생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절대주권 속에서 택하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내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 마귀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 자녀로, 지옥 갈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다 갚을 길이 없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바치는 것이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59세에 순교할 때 마지막 기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마지막 호흡을 하고 피를 쏟으면서 순교했다. 스펠전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식사를 해야 하는데 안 나오는 것이다. 서재 문을 두드렸더니 목사님이 울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여보, 내 마음에 감동이 없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소.” 그래서 울고 있었다는 것이다. 위대한 인물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요 부흥사 아닌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은총, 감격이 내게 사라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게 감격, 감사가 사라졌던 것이 내 모습인 것은 아닌가. 나는 합숙훈련 2기 출신이다. 20년, 30년 가까이 훈련 속에 있었다. 20가지 전략을 잘 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십자가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었다. 최근에 깨달았다. 내가 목사가 되고 수많은 일을 하지만, 총회 임원도 하고 세계선교위원장도 하고, 10년 동안 60개 국을 다녔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것이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속하신 것이다.

(3) 그리고 에베소서 1:11-14에, 성령으로 나에게 도장을 찍으셨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2:20,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왜 아직 살아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배가 우선이 되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는 것인데, 내가 기준되고 세상이, 돈이, 성공이 기준이 되어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 시간, 은혜 시간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도장 찍어주셨다. 이 세 가지 기억하자. 하나님은 영세 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한다. 에베소서 2:8에

뭐라고 했는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이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만 알고 누리려는 것은 나쁜 놈이다.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안다면, 이 복음이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이 성탄은 혼자 기뻐할 수 없다. 친구, 친척,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고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복음 전도의 캠프가 되기를 바란다.

2. 직분의 은혜

(1) 디모데전서 1:12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정말 감사한다고 했다.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 종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장로, 집사, 교사, 성도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바울은 종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 하나님 자녀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있어야 한다.

(2)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다. 청지기의 비유를 하셨다. 달란트대로 맡겨 주셨다. 돌아와서 계산해 보고 말했다. “작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네게 맡기겠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대로 돌려주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있는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요 맡기신 사명이다. 천명, 소명으로 붙잡고,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최목사님은 총회장이시고, 총회장 직분을 빼더라도 다락방 안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 목사님 덕분에 교단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하나가 되고 있다. 여러분은 그런 목사님을 모신 중직자들이다. 이 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다. 다락방을 지탱해 주는 발판이고 버팀목이다.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는다. 여러분이 최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류목사님을 얼마나 모시고 다니는지 모른다. 자유시간이 전혀 없다. 항상 류목사님과 같이 움직여야 한다. 얼마나 힘드시겠나 싶다. 류목사님은 집회 때 비행기를 타면 계속 뭔가 글을 쓰신다. 우리는 먹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류목사님은 계속 글을 쓴다. 좀 미안하다 싶었다. 원고가 나가야 하는 게 많으니까. 얼마나 썼느냐고 여쭙보니까 비행기에서 60여 편을 썼다고 하신다. 류목사님은 흑사를 당하는데. 그러나 누군가는 깃발을 들어야 하나까 류목사님이 깃발을 든 것이다. 최목사님은 그럴 때 류목사님을 도와서 20년, 30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는 메시지는 그때 최목사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다. 종교가 아니다. 학문이 아니다. 선행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다. 그 은혜, 그 구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고 지옥 갈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를 부르사 주의 일꾼으로, 종으로 부르신 것이다. 노예가 아니라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것이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천명 소명 사명어를 직분자, 중직자, 청지기로 나를 세워주셨다.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이것을 잊지 마라.

(3)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다. 생명도 건강도 지식도 남편도 내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총으로 주신 것이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면 여러분은 생명도 건강도 다 잃게 된다.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다. 육은 주신 분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했다. 하루아침에 자식 다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병들었을 때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고백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에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잃어버렸나? 나를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잃어버렸나?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네 배를 채우는 데 쓰고 있나? 나를 위해 쓰리라 하던 약속, 왜 잃어버렸나?” 물질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직분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자꾸 창세기 3장으로 간다. 내가 주인이 된다. 세상이 기준이 되고, 성공이 기준이 된다. 어느덧 사명을 잃어버리고 연자땀들을 돌리고 있는 삼손과 같지 않은가. 장로, 권사, 교사의 직분을 주시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는 은혜를 뒤집어쓰고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뒤집어쓰고 살고 있다. 히브리서 4:16에, “궁핍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

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있기를 축원한다.

3. 나의 삶의 은혜

바울은 고백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여러 사도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살아온 것도, 지금 살아있는 것도,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1)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2)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3)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사회는 미래가 불투명하다. 모든 사회가 어지럽다. 위기 속에 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 것인가를 사람들은 고민한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고 고민한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살아온 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금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임을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결론을 맺는다. 한 가지 단어를 기억하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다. 내가 구원받은 것, 직분자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삶,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만을 기억하자. 콜롬비아 신학교의 교수인 스티븐 옥토버라는 분이 말했다. “그리스도의 제자, 지도자들은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끓는 무릎, 젖은 눈, 뜨거운 심장이 있어야 한다.” 나는 그 책을 읽고 나를 찾았다. 내 심령에 이 부분이 약했었다. 우리는 정시, 무시, 집중, 깊은 기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무릎끓는 기도가 없었다. 끓는 무릎이 없었다. 내 눈에 눈물이 많이 없었다. 내 마음이 삭막해져서 삭풍이 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말랐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복음을 처음 깨달아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뜨겁게 헌신했던 그 마음이 사라졌다. 복음이 학습화, 교리화, 종교화가 되어 있었다. 21가지를 달달 외우는데 눈물이 없다. 젖은 눈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다. 이것이 우리 다락방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말랐는가? 뜨거운 눈물이 말랐는가? 가정, 자식을 놓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한다. 눈에 눈물과 감동과 감화가 없지 않다. 세 번째로, 가슴이 뜨겁지 않다. 깨어진 마음, 뜨거운 심장이어야 한다. 나는 요즘 기도한다. “하나님, 나에게 끓는 무릎, 젖은 눈을 주옵소서. 깨어진 심장, 뜨거운 심장 가지고 복음 위해 살기 원합니다.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랑하는 동료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화하다가 주님 앞에 가도록, 이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참사랑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다. 다락방의 버팀목이 되는 교회다. 자존심이 있는 교회다. 최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전도자의 길, 제자의 길에 있는 줄 믿는다. 여러분이 세 가지, 끓는 무릎, 젖은 눈, 깨어진 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랩넛트들, 후대의 발판이 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받은 은혜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데, 나의 구원, 직분, 삶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끓는 무릎과 젖은 눈과 뜨거운 심장을 주셔서, 교회 살리고, 현장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 살릴 제자를 키우며, 참사랑교회를 세워서 단체의 버팀목, 모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참사랑교회, 당회장과 담임 목사님과 모든 중직자들이 순교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하시며 후대의 발판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부르짖는 교회, 뜨거운 심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